■ 남북 경협위 합의서 채택 의미와 전망

열차 시험운행 실천 동력 확보

남북이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도출한 합의문은 핵심 쟁점인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조건 조성' 이후로 유보한 낮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된다.

하지만 열차 시험운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우리측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세부 합의서에 서명하자는 북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날 9개항의 합의문과 함께 채택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는 경공업 원자재의 대북 제공에 따른 상환 조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상업적 방식과 국제시장가격을 준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개성공단 여건 마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 방재, 경제시찰단 교환 등에 합의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이었다. 양측은 격론 끝에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한다'는 모호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불만족의 균형'을 찾았다.

열차 시험운행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건 조성'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집어넣어 이를 북측 관심 사항인 신발, 의류,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한 데 묶는 '패키지 딜'을 시도, 열차 시험운행의 실천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의 추진도 합의문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으로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온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통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6일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협 제12차 회의 종결회의에서 남측 대표 박병원 재경부 차관(오른쪽)과 북측 대표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공업 합의서에 '조건 조성' 간접 표현 사용
한강하구 골재채취·제3국 진출협력 등 성과

게다가 모래 채취를 통한 골재난 해소는 물론, 준설로 인한 남측 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수로 이용,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제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을 이달 20일부터 갖고 개성공단의 이른바 '3통(通)'문제 가운데 통신을 제외한 통행·통관 문제 개선을 위해 출입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진전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1단계 본단지 개발에 맞춰 북측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조치도 협의하는 동시에 북측의 요청으로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짓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개성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00년 8월 제2차 장관급회담부터 논의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이행되지 못했던 임진강 유역에 대한 공동조사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홍수와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키 위해 제1차 남북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을 7월 중 열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은 남북 간 방재협력의 시작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만한 합의 가운데 하나는 경제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남북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대목이다. 북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남측의 자본과 장비를 투자하고 북측이 노동력을 투입해 탄광개발이나 벌목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보다는 사할린 등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쌀개방 등 특별 현안 '주고 받기식 협상' 없었다"

FTA 협상 김종훈 한국대표

"서로 상대 입장을 면밀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예리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답변에 진땀빼는 장면을 많이 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는 5일(현지시각) 1차 본협상 닷새 간의 협상중 첫날 협상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가 열린 11개 분과를 둘러본 결과를 이렇게 전했다. 일부 분과에선 미국측 협정 초안에 대한 우리측 질문에 미측의 답변이 즉각 나오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하루이틀 사이에 서로 보충자료를 만들어 교환, 의문점들을 해소키로 했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분과별로 상대측 초안의 문안 의미를 묻거나, 일부 큰 이견이 없는 기술적 조항들에 대해선 문안을 절충하기도 했으나 김 대사는 "긴 과정의 첫 걸음, 첫 협상의 첫날 협상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상' 속도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한, 미 양측의 초안을 비교, 쉽게 합의된 부분은 단일문장으로 만들고 미합의됐거나 미심쩍은 부분은 나란히 기록하거나 괄호로 작성해두는 통합협정문안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대표단이 자신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개성공단, 쌀개방 등 '언론이 관심있는' 특별 현안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은 없었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농산물·자동차 최대 난제"

FTA협상 커틀러 美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5일 워싱턴에서 시작된 가운데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분야를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로 꼽았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약 2시간 가량의 오전 전체회의 협상이 끝난뒤 전화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 투명성도 "극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FTA는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커틀러 대표는 양국간 협상의 핵심 쟁점분야를 묻는 질문에 "농업분야가 어려운 의제가 될 것이며, 자동차 문제도 당면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쌀은 분명히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쇠고기 등도 어려운 협상 과제"라고 예시하고, 위생검역 문제는 별도 협상팀을 만들어 다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뼈없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확대를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이는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며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우리당 탈당 안한다

與 지도부 만나 '당적 유지'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 참패이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나 "당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찾은 정동영 전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참패후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떠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5일 저녁 중진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노 대통령의 '당적 유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방선거 참패후 여권발 정계개편설과 함께 '노대통령 탈당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당적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여당 내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특히 열린우리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여당 프리미엄을 상실하는 동시에 급속히 정계개편의 격랑에 빨려들 소지가 있고, 노 대통령 역시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어서 노 대통령의 탈당은 금년말 이후, 또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유재건 전 의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고, 유선호 의원도 "민심을 수렴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정기국회에서 국민 요구에 잘 부응한다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고건 신당이나,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 등의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 열차방북 사실상 무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서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희망대로 열차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와 연계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시험운행 시기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열차방북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총체적 영향 평가 실시하라"

FTA 저지 원정투쟁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 원정투쟁단(단장 오종렬)은 5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 노동자·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투쟁단은 또 양국 정부가 협상관련 문서를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 이를 철회할 것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밟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해외투자자를 우대하는 무역조항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투쟁단은 오는 9일까지 합법적·평화적으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면서 내달 10~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기간에는 미국의 노동단체인 'AFL-CIO'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농민 등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것이며 9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3차 협상 때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